

刊行辭

어느 學者가 말하기를 『歷史는 거울과 같다』라고 말했거니와 果然妥當한말이다. 그렇다  
면 族譜는 바로 그氏族의 거울이 될것이다. 大抵 한나라의 民族國家가 形成되었으면  
그들 나름대로 史記가 있는것과같이 한무리의 氏族에게는 族譜가 있게마련이다. 그러  
기에 사람을가리키어 萬物의靈長이라고 하지아니했는가? 더구나 우리韓民族은 東方禮  
儀之國國民으로서 半萬年の悠久한 歲月을두고 그血統의 純潔을 자랑하여왔으며 白衣民  
族으로서 世界萬邦에 그名聲을 떨쳐어왔음은 또한萬人公知의事實이 아니었는가? 禽獸  
도血統을자랑하는 系譜가있거늘 하물며禮儀國民임을 自處하면서 族譜가없다시야 될변  
이나할말인가? 그러기에 우리宗中에서도 各派間에 各樣各色の族譜가 있었으나 아직것  
僕射公派全姓孫을 總網羅한 大同譜가없어서 아쉬움을禁치 못하는 形便이었다. 더구나只今  
까지의族譜는 純漢文으로 編纂되어 있기때문에 이를解讀하는者가 稀少하여 全姓孫들에  
게 널리 普及되지 못하고 書架의裝飾品 구실밖에 하지못하였는 것이다.  
도리키어 우리朴氏의根源을 살펴보면 巨今二千三十五年前에 우리始祖王께서 有史以來  
처음으로 新羅의王으로推戴되어 新羅國의紀元을創始하시었고 其後連綿繼承하여 第二十九  
代孫이신 景明王代에 이르러 八大君을두시고 그들로하여금 鷄林八道(全國)에 各各封君  
하심을받고 國基의鞏固를꾀하시었는것이다. 그中 우리密陽朴氏는 八大君中에서도 第一大  
君이신 密城大君의 後裔로써 悠久한歲月綿綿繼承하여 子孫이繁衍하였고 朴氏姓中에서도  
가장큰巨族으로繁盛하였다. 始祖王께서는 堯舜以來 東方에서는 처음으로出現하신 聖君으

로 理想的인 道義政治를 이 땅에 심으니 卽 朴·昔·金·三姓을 聖骨이라定하시고 三姓이 서로 有德한 人士에게 王位를 禪讓하는 美風을 남기셨을 뿐만 아니라 六部村長을 비롯하여 國功臣等으로 構成된 君臣合議制를 採擇하시었는 점은 二千有餘年이 經過한 오늘에 이르러서도 높히 評價받아야 하며 王中王으로 歷代君王의 龜鑑이 아닐 수 없다 또한 盜賊이 없는 理想的인 道義政治를 具現하셨으니 歷代君王이 이 精神을 이어받아 마침내 나라가 크게 發達하고 눈부신 燦爛한 新羅文明을 形成한 것이다

高麗와 李朝에 와서도 繼續出將入相하는 偉大한 名臣巨儒가 續出하여 밖으로는 國威를 宣揚하고 안으로는 邦家에 功獻하여 或은 民族의 師表로서 推仰을 받고 或은 道學과 德行이 兼備하여 몸소 國家社會의 紀綱을 振作하신 大人物이 連綿不絕하여 그들의 功績이 間斷없이 靑史에 빛을 내었다 이와 같이 赫赫한 功勳과 偉大한 業績이 史實에 昭明하건만 우리 後孫들이 不實한 談으로 자랑스러운 祖上님들의 遺業과 遺志를 받들지 못하였으니 어찌 痛歎치 않으리오 그럼에도不拘하고 現代人大部分히 老少를 莫論하고 스스로 文明人임을 自處하면서 世界史나 他國史의 研究에는 吸吸하면서 도 우리의 歷史、自家의 族譜는 等閑視하여 이를 疎忽히 取扱함을 볼 때 寒心하기 이를 데 없다 우리 後孫된者 마땅히 祖上님들이 남기신 香氣로운 遺志를 받들어 거룩하신 德行을 거울삼아 修行의 基本을 삼을 것이며 또한 우리 後孫들에게 넘겨 주어야 할 이다 多幸히 今番 編纂한 族譜는 一般姓孫이 알기 쉽게 하기爲하여 國漢文混用으로 平易하게 收錄하였으니 이로써 名祖顯宗의 片鱗이나마 糾察할 수 있는 資料가 되고 處世의 指針을 삼을 것을 祈願하는 바이다

今次大同譜刊行에際하여 特記하고저함은 무엇보다도 우리僕射公派有史以來로 初有의慶事  
라할수있는 文林郎公派宗中과의 合譜로서 兩宗中을爲하여 同慶하여 마지않는다 여기에  
는同派宗親會長이신 興俊氏와 釜山來勳氏 晉州來華氏 大邱用浩 洙福氏等 諸族의 至大하  
신 努力의 結果로서 感謝하여 마지않으며 또한 大邱朴氏世譜刊行委員會 任員諸宗의親  
切하신 指導와 本會族譜 編纂委員長喜在氏 事務局長觀用氏 財政部長奉夏氏 校正部長大用氏  
總務部長喜茂氏를 爲始하여 在用 敦用 周範 善用 輔夏 承夏 喜範 諸宗의 至大하신  
勞苦와 各門中代表者 諸宗의 物心兩面에 巨한 絶大的인 支援으로 大團圓의 幕을 내  
리게되고 最短期日內에 平易하고 豊富한 內容으로 族譜를 刊行하게되는데 對하여 거듭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이다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一九七九)己未四月 日

尚書左僕射公府君二十七世孫 昌鉉 謹識

國之有民은 如家之有族하고 國必有史요 家必有譜라 萬若國無歷史이면 紀綱이 乖亂하여  
沼國安民할수없으며 家無譜乘이면 崇祖愛宗의 意義를忘却하여 治家敦宗하기어려울것이다  
然則私家の族譜는 國家의歷史와同一한것이다 唯我中祖尚書左僕射公諱彥仁은 新羅開國太祖  
大王이시고 朴氏의 始祖이신 諱赫居世居西干의 第三十七世孫이며 本貫은密陽이요 官은  
高麗文宗朝에 壁上三重大匡門下平章事尚書를歷任하시어 左僕射에이르시고 密直君으로受封  
하시었다 其後裔가 無限蕃衍하며 縉紳巨儒와 禮樂大家가 續續輩出되어 우리宗門을 豪

華燦爛케하였다 一方우리의先祖들은 崇祖愛宗의 理念을 涵養코저 世譜의 刊行을 間歇的으로 不斷히 勵行하여왔다 그러나 當時의事情은 通信과交通의 隘路로써 遠僻의姓孫들이 漏譜된바許多하여 不平이藉藉하고 異口同聲으로 無漏入譜의 大同譜刊行을 懇願하여왔다 此事業은 莫重한巨事인지라 無可奈何로 歲月만 空轉하고있었다 그러나 天道의循環으로 宗運이方開하여 吾左僕射公派大同宗約所會長이신 昌鉉宗親이 晝宵一念下에 始祖王一世로 부터 現世代까지의 左僕射公派傘下 諸姓孫을 無漏總網羅한 大同譜를 刊行할것을 構想하고 五個星霜의 長久한歲月에亘하여 不顧私事하고 東奔西走하여 專心努力한 結晶으로 吾派內全姓孫들이 此에感動呼應하여 全幅的으로支援함으로써 國內坊坊谷谷에 散居한 姓孫들을 總網羅한 大同譜를 於是乎刊行하게되었다 此는吾派內에 世譜刊行史上 空前絶後의巨事인同時에 永久不滅의 金字塔를築造했다할것이다 此事業을꾸준히推進하신 大會長및 各任員僉位의 不斷하신勞苦와 不朽하신功績에對하여 높이讚揚하는同時에 深甚한謝意를表하는바이오며 此로因하여 앞으로우리宗門의 姓孫들은 追遠報本의精神과 崇祖愛宗의意義가 昂揚하며 有終의美가實現될것을 確信하는바이오며 今般大同譜刊行에 際하여不肖가歡喜와感銘에不堪하여 所懷의一端을 頭緒없는 蕪文으로 舒述하여 序에代하노라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己未四月 日

左僕射公府君二十二世孫 興俊 謹識

譜也者上以祖先昭穆之未詳者宜於此而可徵信焉下以宗族分派之不明者宜於此而可取考焉庶幾無祀宋不足徵之嘆也 惟朴姓者蓋系出於 新羅 始祖王而其後子孫蕃衍徧於國中稱爲東方大姓者以甚

聖祖至仁厚澤 抑有 沙麓之詳胎蠻之祐耶 中分爲 八大君 各得貫本三十有餘而 貫密陽者 卽密城大君也 密城大君爲受貫之祖而起一世 於其後孫 僕射公以爲譜者 固其事體之不得不然 至於 近世 文獻之可徵者 漸出不一而 足昔之所爲不明皆得以明之洵 無所容疑也 爲是我 菊堂 蘭溪 二樂堂 三派亦從其所已明而直以 始祖王起世 補其缺系 以成一統 此今譜之所 以爲修者也 於是焉 源流無屬 根枝不問 吾姓之所可幸 爲何如耶 雖聞寡而識淺以 荒拙文 略 敢述所懷 蓋相與勉之勵之哉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己未四月

蘭溪府君十七世孫 彰夏 謹書

나라가 있으면 國史가 있고 그姓이 있으면 그族譜가 있는것은 古今에 다름이 없는 지라 그史를 못민어워함은 그考證이 없음이요 時代가 흐르고 사람도가고 事物도 없 어지고 흔적조차 감추어진後에 아무리 千言萬語와 長文巨編이 있은들 그眞僞를 그 누구에게 呼訴할것인가? 그러므로 宗史란 오직 公은것으로 釋이어야하고 바른것으로 그려야 하는것이어늘 噫라 우리新羅太祖王께서 나라를 세우신지 二千三十六年이 지 나가고 나라이름도 몇번이나 고쳤으며 都邑도 여러곳으로 옮겼으며 地圖는 그 빛을 몇번이나 변하였는지 이滄桑浩溔을 거취간 오늘에 우리始祖任이 남기신 자취는 悠 久한 歷史속에 璨然하다 우리不億의 姓孫은 다같이 始祖任의分身들이다 古人이 이르 기를 同姓同本은 百代之親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一祖之孫으로 그派系가 소연합이라? 이같이 至近至密한 우리親屬으로써 서로보기를 路人과 같이하니 倫常大道에 어기고

不友不睦하는 허물을 어찌免할수 있으리오 이를痛惜不已하여 마지않는바이다  
 惟我僕射公派大譜는 워낙 浩尙하여 일찌기 編修치 못하였었다 數年來로 爲先事業이 積  
 極的으로 展開됨에 따라 各門中 宗員들의 絶對的인 要望으로 昨春四月에 宗親會長 昌鉉理事  
 長 觀用 干族弟를 求心體로 하여 前例없는 巨創한 事業을 着手하였던 것이다 內外的으로 다퉈  
 오는 모든 隘路를 슬기롭게 克服하고 不過一年餘에 編修가 完了되어 全姓孫의 所望이 이루어진 것  
 은 編修之役을 擔當한 僉宗의 犧牲的인 愛族精神의 結晶으로서 惟我宗中의 一大慶事며 爲先修  
 誠의 龜鑑이라 하겠다 編修는 舊譜를 基本으로 現代的으로 果敢히 增補하고 始終考證에 忠實하  
 여 向上發展된 우리들의 寶典이라 믿는다 卽事蹟 編에는 原文을 翻譯添載하고 有關寫眞을 插入하였  
 으며 孫錄에 諱啣에는 懸吐하여 讀解를 容易케 하고 生存孫錄年號에는 新羅紀元으로 表示干支를  
 添記하여 新羅 始祖王의 後裔로써 確然한 存在와 높은 矜持를 갖게 했다는 點이다 本譜 編修에  
 있어 在北同宗과 蘭溪公派 一部宗員이 自派事情으로 參與치 않음을 遺憾千萬으로 思料한다 大  
 同譜가 完成된 것을 楔機로 삼아 先祖以來로 반들어 온 崇高精深한 精神을 더욱 새롭게 하고 慕先之  
 心과 愛族之誼로 和睦團合하여 宗中의 健全發展을 期함으로써 國家社會繁榮의 一翼이 되기를  
 祈願하는 바이며 祖上님들의 빛난業績을 더욱 顯揚하여 우리門中 名譽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  
 고 믿는다 끝으로 編修之役에 犧牲的인 僉宗에게 眞心으로 敬謝하며 末裔의 一人으로서 別다른  
 힘이 되지 못한 것을 悚懼하게 生覺하는 바이다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己未 榴夏

菊堂公府君十九世孫 大用 謹跋

譜奚作하고譜其族也니即一族之史也 昭穆之相承이由是而明하고人物之隆替가由是爲明하고生卒死葬도由是而明하니此各氏之所以必備而 吾朴遵此例者也 盖因世代之追遷하여隨時隨成을不可己之事而 吾族之繁衍이 自羅王諸祖之盛德累仁으로源深流長하여名公卿賢達士가連綿接踵하니其麗不億여實爲東邦居甲之族이러 大同作譜가間世繼續而卷秩이浩繁하여奉審이不易하고世途搶攘에尊閣이亦難일세以圖其簡便이러 自始祖王으로傳至列舉孫錄하여僅止洋裝五冊이러家家藏人 人奉하여時時拜讀에祖先之懿蹟과族系之分流가瞭然在目이러 程夫子所謂收宗族厚風俗之義가族斯得矣러 切念各宗各派는若以此例에도隨處修成則分而爲大譜요合而爲總譜라一網舉而萬目張하고萬派溯而一源明이니生乎千禩之後而追究乎 千禩之前이煥若燭照에其規模가雖近淺劣而切効之緊要가不可謂不切이러 譜其成에 謹書一于卷端하여以鑑於後하노라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己未四月

二樂堂公府君十七世孫 奉夏 謹跋

此吾朴僕射公派之譜也上自一世新羅始祖王으로列錄其子孫에以明世代及雲裔次序者也라夫有大同譜之作이全國散在諸派가舉皆入錄하여規模宏壯에條例正當하니可以光輝乎과史與譜之重且大난不待贅言이니晚近西歐風潮가入我國으로不可輕視看過之料과敎道學術이相贊하고異端이反覆이나忠之訓은先祖之遺風이요以講敦睦之義난宗門而可思幸哉라惟我文簡公大提學府君이始居永縣하여種德裕後하고 菊堂 蘭溪 二樂堂 三先生은皆以道德文章으로聞於世하고翰林公之忠節과挹清公之道學과老孝子公之純孝난我家忠孝道學相傳之業也其後忠孝道學이亦繼世而出이나不可盡錄이러然이나各派派譜刊行이日淺하니綜合大譜는今初之編이러噫라今後千百載에尊祖敬宗之義가繼後世

傳하여 可期繁昌哉이라 余以不肖 屛假參末役하여 有所感切於此故 玆以附薦趾하노라

新羅紀元二千三十六年己未 四月

菊堂公府君十八世孫 喜在 謹跋

### 重修花樹會序

惟我密陽世家甲于羅韓爲東土千年大姓則雲仍之奉宗法遵世教者孰不惕然而警油然而感無忝故家之遺風餘韻乎元亮之詩同源分流感役行路者不忘本也剛允之序親盡情盡慶不問憂不弔者獨何心哉吾宗全盛時刻日期會少長咸集昭穆有序門戶清顯不讓崔盧之世祿縉紳烜赫奚羨金張之敦睦而當初一人之身連枝分葉數世以後親者漸疎近者寢遠轉至於所不知之何人則先祖不昧之靈儻不飮泣乎冥冥之中也耶前世之秋從氏蘭溪公自京抵書囑之曰吾宗久未行門會天序人親邈焉貽阻面不識情未孚者十居八九宜講花樹故事以爲繼開之道從兄此言實符我心發文約會于 密城根本之地預是宴者凡九十三人或享期頤之壽或帶符麾之榮若其下新進之賢後來之秀亦不乏人盛且樂哉共聯一榻溯求分派各以其序列次乃以無論疎密世講雍睦之義略其節目書之契帖且題諸宗人名字年甲以成永久之計老夫今日之意欲其交相勉也 正統三年戊午秋密城朴興居子由序(正統三年은世宗十五年)

### 註解

우리密陽朴氏는新羅爾來로千年間을내려오면서東方의大姓으로子孫들이宗中法度を받들고世教를遵守함은世人이모두模範으로삼고感服하나니故家の遺風과餘韻으로서부끄럽지않다 古人の敎訓을되새겨根本을잊지않으려고精神을恒常體得하나니라 우리宗族의全盛時에는長幼가자주모여서昭穆이秩序가있고門戶가清顯하여崔盧의世祿에되지않았고榮達한人材가많이輩出되어서金張의

敦睦이 부럽지 않았었다當初는 한 사람의先祖에서 많은子孫이繁昌하게 되어서累代를 내려가는 동안에  
親近하는近親이漸次疎遠하게 되어서及其也路傍의他人과같이되나나이렇게되면 先祖의靈魂이地  
下에서痛哭하실것이아니겠는가 昨年가을에從氏蘭溪公이서울에서書翰을보내어委囑하되우리宗  
親이門中の會同을오래도록갓지못하여族親間의系譜를 밝히지 못하고情誼가疏隔하게되어面識조차  
없는사람들이殆半이니花樹의天理를본받아서睦族의道理를講究하라고하셨다 從兄의이말씀은實  
로내뜻과같았으므로곧여러族親에게通知하여朴氏根源之地인密城에서會同하게하였든바叅集者가  
九十三名에達하였다이렇게모이니各界各層의人物과훌륭한後進들도많아서盛況을이루었다  
昭穆을 밝히고序列을찾아서節目을具載하여契帖을作成하고各宗族들의字函과年甲을記載하여永久  
히保存하도록하니 오늘의이뜻을서로가勉勵할지어다

### 世譜舊序

朴氏於海東諸姓最舊而顯蓋新羅始祖王首出庶物因以得姓而至今數千年遍於國中者不翅若湯孫之不  
億支分派別封籍甚多密陽即其一也籍于密者凡三派即世所稱菊堂蘭溪及二樂堂脚下是也而世代寢遠  
子孫蕃衍則難於會通不其然乎菊堂之孫修其派譜將付割厠氏而問序於余余嘗聞譜之所由來久矣其親  
疎隆殺之例著於歐蘇之作敦宗厚俗之義程張之訓而事行履歷生卒墳墓俱哉於譜序在其中矣安用架壘  
之爲哉雖然必欲弁卷亦有一言以奉復者嗚呼雖以有宋之大邦中州之文獻尚無百年之家而惟吾東以爲  
朴氏者乃以天潢餘派赫世蟬聯直與晉之王謝唐之崔盧爲甲爲乙何其盛哉所謂根固而枝茂源深而流長  
者誠不可誣也詩云夙興夜寐無泰爾所生朴氏同此譜者苟能各知其來而處而不忘其本敦孝悌立忠義終  
見風俗之厚朝廷之尊則從茲以往以至百千萬世而可卜其昌熾之兆矣於不美哉每於花樹之會蓋以是勉

之今尸其事者實菊堂公十三世孫承旨鳳欽而謁余文者即其從子觀浩也

世譜舊序

崇禎五庚午維夏日崇政大夫議政府右贊成兼知

經筵春秋館事弘文館提學德殷宋近沫謹書

朴氏는海東의 여러姓가운데에서가장오래되고또나타나있는姓이다新羅始祖王께서得姓한爾來로數千年을내려오는동안에나라안에널리퍼져서 달리封籍한分派가甚히많으니密陽은그중의宗派인것이다密陽朴氏는三派로또나누어졌으니世上에서菊堂 蘭溪 二樂堂派로각각일컬어지고있다世代가멀어지고子孫이繁昌해감에따라서로通涉함이어려워지니그렇지않을수가없다 이에菊堂子孫이그派譜를製作하여出版코저하고 나에게序文을請하였다 그族譜의由來가長久하여子孫의盛衰와親疎가明白하면서顯赫하여서古典에서古代顯族의例에되지않고宗族이敦睦하고習俗이厚德한義理는程子나張子の敎訓과어긋남이없이東方의大姓巨族으로秋毫도遜色이없나니이제譜牒을昭詳히살피건대事行과履歷 生卒 墳墓가모두譜牒에記載되어있어서序가가운네에있으므로 다시더加添할나위가없다그러나譜牒을구미면서한마디말이없을수없어이글을쓰는바이다 嗚呼라有宋의大邦이나中州의文獻에도아직이와같이綿綿히이어오는百年之家가없나니라 우리東邦의朴氏로말하면赫赫한大家로서晉의王謝와唐의崔盧와莫上莫下이니어찌훌륭타하지않겠는가 所謂根幹이堅固하므로서枝葉이茂盛하고水源이遠大함으로서江河가길게흐른다함은決코虛言이아닐지나라朴氏門中에태어나서이族譜에이름을실은者는祖上의 훌륭한을잊지않고孝悌에敦篤하고忠義에힘써서處身하면風俗을惇化하고國家에貢獻하게될것이니將來百千萬世에이르도록昌盛할兆朕이되겠으니어찌아름다운일이아니겠는가말이다 花樹會때마다 이렇게勉勵한사람은菊堂公의十三世孫前

承旨 鳳欽이고 나에게이 글을請한 사람은 그從子觀浩이다

庚午譜序

譜者上以系祖先之昭穆下以序宗族之支分以明其尊尊親親之意即宋朝歐蘇之家所以爲譜者誠此意也  
惟我密陽之朴蓋自漢宣帝地節元年壬子新羅始祖王諱赫居世始爲得姓而年纔十三聖德彰著六部村長  
立以爲君即漢宣帝五鳳元年甲子也中間有八大君分封于州縣吾朴則密城大君封于密陽因以貫鄉其後  
子孫蕃衍而屢經兵燹之餘世系年代諱號文獻盡爲失傳只傳麗朝僕射公以下五世而入我朝大提學公  
先祖娶于永山金氏典客令令貽之女因爲贅居於永同而有二子長子諱天錫官吏曹判書次子諱天貴官漢  
城判尹判書公之子諱堧號蘭溪官吏曹判書大提學判尹公之子諱興生號菊堂官縣令次子諱興居號二樂  
堂官監察菊堂蘭溪二樂堂公三派之孫如翰林公之貞忠卓節挹清公之道學性理老孝子公之純孝篤行輩  
出其他道學忠孝繼繼承承先賢君子銘之金石書之行狀而式至于今矣自先世以來三派宗族屢發譜議而  
公議不得歸一尚今未遂昔在辛酉年間大邱僞譜刊行而至於非祖爲祖之境故三派宗議齊發以爲破譜近  
自戊子己酉兩年之間菊堂公派僞譜數次刊行而荒雜無雙故自宗中發通收覓以爲洗草而達方流布未能  
盡收可勝歎哉今茲不得已以菊堂公派派譜爲定刊行而姑俟後日之宗議欲爲三派合譜之計而沃川竹項  
派則以先世山訟事引嫌而不入茂朱基谷派則亦以竹項同派處義而不入雖非譜體勢所然矣謂之何哉

菊堂府君十三世孫 承旨 鳳欽 謹序

序 文

族而有譜百世爲一室族而無譜兄弟爲路人無族則己有族則譜烏可己也 蓋譜者普也普之義大矣苟不  
上以至所自出之本源下以合所以分之支流亦豈譜云乎哉 千枝萬葉於木者其本一也 千派萬流於水

者其源一也之二物亦命於天者而冥然頑然不知叙其父子祖孫兄弟宗族之倫者性塞而不能推也若夫生爲萬物之靈者人也仁也者仁之所推至廣至大以乾坤爲父母萬物爲同胞觀於張橫渠西銘可知也况以一人之身分爲百世之千萬億身可不思夫尊祖敦宗之義自歸於水木性塞之科哉是以遷固叙其世遠自重黎顓頊歐陽氏亦溯至大禹而其百世支葉派流之合牒并叙未有考焉蓋子孫宗族繁衍於百世散處於四方則既不勝相知又不勝收而合之固勢也吾東則不然士大夫譜牒之盛殆家有焉雖三四十世苟知爲一人之孫輒爲之合譜即疏而復親之義而不察來歷以來五季淆亂之譏者往往有之此合譜家所宜慎也惟我姓朴者蓋出於新羅太祖今上下數千年其麗不億矣後於八大君而各得其貫本者殆三十有餘矣貫密城者亦世代遠而派分象矣譜固不可得而同也惟我同祖 大提學府君者不過三派宜合爲譜而本無譜合與不合固無足論尋常慨然于中久矣族人承旨鳳欽公輝甫乃者創議自 菊堂府君脚下別爲一譜蓋與其都無譜寧爲派譜以作乘亦可也然而其爲 大提學府君脚下者雖有南北阮大小鄭之分而以陳張同居之義揆之則十世纔過譜亦不同實非尊祖敦宗之意嗚呼 二樂堂府君脚下豈獨永爲無譜之族而慨然本意早晚得遂則普字大義其敢忘乎云

崇禎紀元後五周庚午四月 日

大提學府君十七世孫 叅判 來萬 謹書

一世

始祖王 시조왕

姓朴諱赫居世

漢宣帝地節元年壬子秋

七月聖母自仙桃山降

于楊山羅井

始祖誕降有祥異祥

漢宣帝五風元年甲子夏

四月丙辰即位國號徐

羅伐號居西干

漢平帝元始四年甲子春

三月薨在位六十一年

壽七十三陵國都南七

里臺岩寺傍南學教內

卯坐

始祖王妃閔英氏初龍見

於關英井

始祖王妃誕降有神異祥

漢宣帝甘露元年戊辰春

正月封王妃有賢行能

內輔國人謂二聖誕三

男一女王之薨七日王

妃薨陵同原卯坐事實

載史譜太子南解嗣位

謹按南解儒理婆娑在

二聖陵原內故人謂五

陵蓋謂漢之五陵至于

李朝世宗朝立廟景宗

朝賜額廟號曰崇德殿

又按明衛舉章譜

始祖王甲子夏四月始都

辰韓之地甲寅秋九月

與佐命功臣六部村長

開國功臣二十人設舉

章殿萬福宴頌君臣功

業作回卷之稷述其事

二世

嗣南解王 왕 남해

諱或作海懿解亦曰次

次雄

漢平帝甘露四年辛未誕

生元始四年甲子立號

次次雄三年丙寅春正

月立始祖廟四時親祭

更始二年甲申秋九月

薨在位二十一年壽七

十四陵先王陵同原卯

坐

王妃金氏封雲梯王后一

女陵方山子坐

王妃昔氏封阿婁王后一

云阿夫人事實載史譜

儒理王嗣位

三世

嗣儒理王 왕 유리

諱治理亦曰齒理

漢宣帝更始二年甲申立

東漢光武中元二年丁巳

久十月薨在位三十四

年陵先王陵同原卯坐

王妃金氏封明聖王后葛

文王日如女誕二男二

女陵東山子坐事實載

史譜王以遺命傳位昔

脫解

漢章帝建初五年庚辰昔

脫解復傳位王之次子

婆娑王

四世

嗣逸聖王 왕 일성

漢光武二十年甲辰誕生

漢順帝陽嘉三年甲戌立

漢桓帝永興二年甲午春

二月薨在位二十一年

壽一百一十一年陵國都

南七里蟹目嶺下醬田

洞卯坐

王妃昔氏誕一男陵金西

門外子坐

王妃許氏正安女事實史

譜太子阿達羅嗣位

五世

嗣阿達羅王 왕 아달로왕

漢桓帝永興二年甲午立

漢帝中平元年甲子春

三月薨在位三十一年

陵國都南十五里拜日

山卯坐

王妃昔氏誕一男一女陵

金西門外子坐事實載

史譜

六世

男碧芳 왕 비방

代休王昔氏朝追封葛文王

早卒昔氏元年甲子靈帝

中平元年墓金西門外子

坐

配金氏墓同原子坐

公主昔奈解王

諱輝 進尊憲聖王子

七世

子武英 왕 무영

泰解王朝前山君昔氏元年

丙子缺帝建安元年

配李氏墓前山同原子坐

見下

子阿道 왕 아도

初諱簡枯

逸聖王朝封葛文王享年一

百二十四出三國史墓寶

門山乙坐

配昔氏婆珍涂允女

女金仇道

子味雅王立追尊葛文王

維林始祖大補追封王開

智六世孫

子屈強 왕 굴강

見下

四

公主昔良乙

大阿涂

公主昔摩福

沙伐州軍主

公主昔脫大

沙珍涂致仕

子智仁 왕 지인

角千

子阿明 왕 아명

波珍涂

男伊非 왕 이비

諱一云伊漆追封葛文王

密陽朴氏僕射公派大同譜卷之一